



한 교 숙

(인천직할시 주안6 동)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기까지

꽃과 생활한지도 이인 5년. 실로 유수와 같은 세월이었다.

그간 맺어온 꽃과의 인연, 그리고 그 나날 조차 내게는 아무런 후회없는 보람찬 나날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원예를 하면서 얻는 기쁨은 여러가지지만 내 경우에 있어서는, 나를 둘러싼 주위의 화초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힘있게 서있는 커다란 선인장을 볼 때면 모리꼬네의 음악이 흐르는 넓은 황야의 모습이 쉽사리 연상되고 존·웨인을 닮은 썩썩한 건맨(Gun man)의 모습이 웃음 속에 그려진다.

진나라 시황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메던 불로초가 바로 내앞에 있고 네델란드, 그 낭만 넘쳐흐르는 땅에서 그림처럼 자라는 튜울립은 내 코앞에 있다.

이처럼 한 곳에 앉아서도 온갖 이국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어찌면 꽃과 생활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그밖에 달콤하고 향긋한 천리향과 치자의 내음은 더러 수심에 쌓여있는 나를 말없이 위로하는 좋은 벗이다.

아침마다 그들을 대할때면 어느샌가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아가서는 일말의 모성에 비슷한 사명감마저 느끼게 된다.

“나의 손에 달린 아름다운 생명들...”

생명이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마찬가지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던 가혹했던 체험이 내게는 있었다.

정원사이신 아버지를 따라 회사에서 일하고 배우는 동안, 정성을 쏟은 만큼 기특하게 잘 자라주는 식물들에게 매료되어 급기야 나는 꽃을 재배하는 동시에 팔기도 하는 장사의 길에 들어섰다. 정들었던 교직생활을 정리한 것은 물론이다.

내가 택해서 걷게된 원예의 길은 처음의 기대처럼 보람된 길이었다.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고사 상태에 빠졌던 식물들이 나의 정성에 의해 소생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란...

생명의 중요함은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더욱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던 가혹한 체험이 내게는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뜻하지 않게 내몸에서 발견된 무서운 병마.

진단의 결과는 차라리 사형의 선고와 같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는 큰 수술을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상태였다.

그때 어쩐지 자꾸 모르게 가까워지는 듯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에 잠기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날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데...

딸만 다섯인 가정의 맏딸. 나이드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

었다.

수술 날짜를 받아 놓은 뒤에는 거의 모든걸 체념하고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모든걸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나의 화초들, 월동용 식물을 구분해 놓고 구근심기, 수정재배 등을 둘러보며 마지막 손질을 하는 나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술, 약몽과 같았던 5시간.

몽롱한 마취 상태에서도 시계의 초침소리는 너무도 크고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가 살았구나” 확실히 살아난 것만도 다행이었고 신께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그후, 몇달동안의 숨가쁜 치료와 요양 생활 중에도 나는 거금거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곤 했다. 특히나 내가 키워주고 돌보아 주던 많은 아름다운 생명들, 내가 없는동안 행여 상하지나 않았는지, 그토록 염려될 수가 없었다. 날씨라도 춥거나 하면 나의 근심은 더한층 심해졌다.

먼 길을 나를 위해 오시는 부모님들은 내게 식물의 상태를 보고하는게 일이었다.

너무나도 길고도 지루했던 회복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본 화초들.

푸르른 잎, 이쁜 꽃, 향긋한 내음 모두가 그대로였다.

그러나 표정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그 화초들이 나를 반가워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위치가 바뀌어진 화분들은 아마도 부모님께서 내가 제일 먼저 보라고 옮겨 놓으셨음에 틀림이 없었다.

깨달음은 진보의 전제다. 나의
원예 기술은 미비한 것에 지나
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몇배 더
큰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

그간의 나날은 확실히 진통의 시기였지
만 한편 그건 그만큼 큰 깨달음의 시기이기도
했다.

무엇하나 두드러진 것 없는 내 생명조차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의 생명 뒤에는 그보다 더 큰
염려와 수고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았다.

사실 원예란 생명을 가꾸어 나가는 과
정이다. 그래서 더욱 진지한 과정이고 기
술에 앞서 생명을 소중히 대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일이다.

이같은 사실을 깨우치는데 어찌면 난
너무나 큰 댓가를 지불하긴 했지만 지금의
내게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

문득, 자주 찾은 단골손님 생각이 났다.
얼마 남지않은 여생을 꽃과 새를 기르시며
사는 그분.

혹 몸이 불편하거나 심하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도 전화로까지 청탁을 해서
물도 주고 분갈이도 해드렸는데...

어찌면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 할것
같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낳은 꽃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한 분.

깨달음은 진보의 전제다. 내가 5년동안
익힌 원예의 기술은 실로 미비한 것에 지
나지 않지만 그보다 몇배 큰 “생명의 가치”
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크고 작은 온갖 꽃들, 부
모님 그리고 나를 아껴주시는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생 활 생 분

담수어는 무공해 고단백식품

불포화 지방산으로 성인병도 예방

일반적으로 담수어란 민물장어· 송
어· 향어· 민물돔 등의 총칭.

담수어는 무공해 자연식품인데다가 고
단백 영양식품이며 함유하고 있는 지질
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뤄져 성인병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장어의 경우 영양학적으로 뛰어나
다.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모세
혈관을 튼튼히 해주며 비타민A의 함량은
쇠고기의 2백배가 넘는다.

장어는 뱀장어(민물장어)· 무태장
어· 바다장어(아나고) 등이 있는데 바다
장어는 민물장어에 비해 영양가가 다소

떨어진다.

회나 매운탕으로 적극적인 송어는 심산
계곡의 맑고 찬물에서만 자라는 무공해
고핵산 식품이다.

향어는 일명 이스라엘 잉어라고도 하
는데 소양강 등 맑은 용수에서 양식되며
성인병예방과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다.

틸라피아 역시 고핵산 고단백식품으로
서 일명 민물돔이라고 불린다.

현재 담수어는 대체로 구이(장어) 회
(송어) 매운탕(송어·향어) 등으로 요리
법이 극히 제한돼 있는데 다양한 조리법
으로 건강에 좋은 요리를 만들수 있다.